

충남의 2013, 수출입 들여다보기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71%가 충남의 것’

지난해 세계경기 회복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156억 달러로 무역 흑자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순위 세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충남의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71%에 상당하는 31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 기여율,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수출 증가율에서도 지난해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로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2.1%)을 3.0%p 상회하며 선전했다. 주요 지역과 비교에서 경기(16.0% 증가), 충북(14.1%) 등에는 뒤지나 경북(3.2%), 서울(2.8%), 인천(2.2%), 울산(-5.9%) 등에는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2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18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충남의 수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2억 달러 증가,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액에 대한 충남의 수출 증가 기여율은 26.8%로 경기도(119.2%)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충남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반도체 총수출의 약 1/3’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571억 달러로 호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남의 반도체 수출 실적은 17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31.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석유화학중간원료(비중 48.6%), 전자응용기기(48.5%) 수출은 해당 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가량을 충남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전자응용기기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5% 수준에서 지난해 48.5%로 큰 폭 확대됐다.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남 수출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충남 전체 수출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81.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과의 비교에서 전남(95.4%), 울산(82.9%)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경기(62.0%), 서울(50.8%) 보다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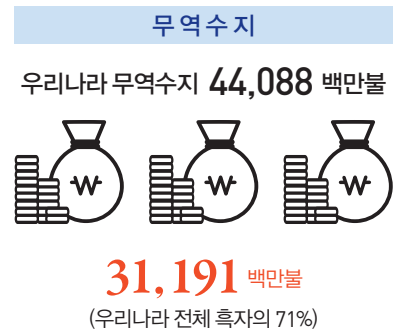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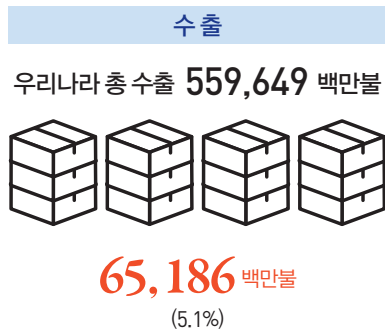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수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자칫 수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오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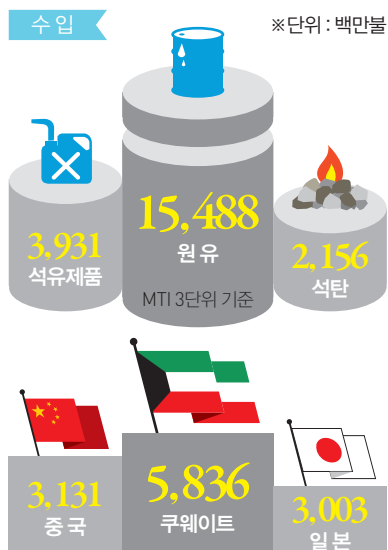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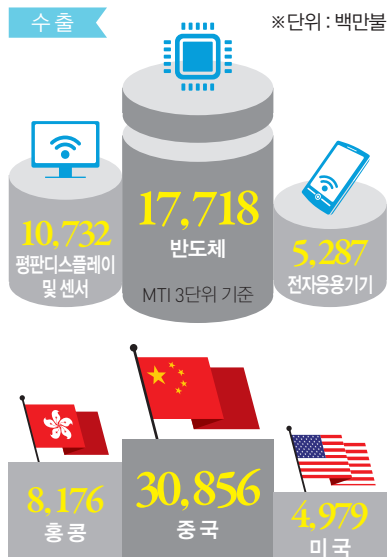


충남의 2013, 수출입 들여다보기

₩ 2013년 충남의 수출입 현황



₩ 2013, 수출입 실적 BEST3



₩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 규모 및 기여율

